

국립대학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에 관한 소고

-경북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도서관

최명순

< 목 차 >

I. 들어리

1. 지역자료의 개념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II. 지역자료 수집 실태 및 문제점
1. 지역자료 수집의 중요성
 2. 지역자료 수집의 실태
 3. 지역자료 수집의 문제점

III. 국립대학도서관의 지역자료수집

1. 타 도서관 및 유사기관과의 중복 수집
2. 전담 부서의 설치와 전담자 배치
3. 효율적인 지역자료 수집방법

IV. 맺음말

I. 들어리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특질을 흔히 들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지구촌 시대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민족만이 생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화하려면 지역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지역자료 수집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닌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수집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료의 개념을 시대 조류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지역자료 수집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역자료 수집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정보전달매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정보가공기술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급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정보의 가공은 정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자료 발굴과 수집은 정보원의 확충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원의 확충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아울러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자료의 수집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다.

1. 지역자료의 개념

본고에서는 지역자료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유사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시류에 따른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향토자료라는 용어를 도서관 현장이나 문현정보학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왔다. ‘향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①시골, 고향땅, 향촌 ②토지, 주민, 노동 등을 요건으로 하여 구성된 지역 사회가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 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개념¹⁾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향토의 개념을 살펴보면 ‘향토’는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 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을 지칭한다. 향토의 지역적 범위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부락이나 마을·읍·시,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군 등을 가리킨다²⁾고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향토’를 선조이래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의식과 그의 거주지역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향토’는 일정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신·문화가 어우러진 유기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향토’

라는 개념에다가 ‘자료’라는 명사를 붙여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향토자료’를 ‘지역자료’로 변환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향토자료’라는 용어가 지난 공간성 즉 지역성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역사성(시간성)은 현대적 감각에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관점에서이다. 도서관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역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현재 자료가 지난 미래의 역사성을 망각하고 소홀히 다루기 쉽다는 점에 변경 사용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면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용어를 비교하여 사용근거의 합리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향토자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지역자료(local collection)와 지방사 자료(local history collection)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둘을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³⁾. ‘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지표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 부분 산지, 평야 또는 열대, 온대 등을 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것과 도·시·읍·면·법원·경찰 등의 관할구역 등 인위적으로 구획된 것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자연적 구분에 의한 것을 자연지역, 행정구의 인위적 목적에 의한 것을 형식지역이라 한다⁴⁾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토’나 ‘지역’이나 행정구역 즉 영역(에리어)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향토’라는 단어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p. 4173.

2) 정장호, 「지리학사전」, 경인문화사, 1989, p. 559.

3) Kent, Allen et al. (ed. by),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6」, (New York : Marcel Dekker, 1975), pp. 259-279

4) 이희승 편저, 전계서 p. 3471

보다는 문화적·고전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나 통시적으로 국한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지금까지 정의된 '향토자료'의 대표적인 정의를 보면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는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화 및 기타 자료 일체"로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한 것 및 그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 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그 지방 소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관한 자료 등"⁵⁾을 일컫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현태님은 향토자료를 지역사회 의사록, 지방사법기관 재판기록 등을 포함한 지방행정자료, 전통악기, 고고학 유물, 표본자료 등의 박물관적 자료, 향토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미술작품 등의 지역소재 자료, 고서, 고문서, 족보, 읍지 등을 포함한 고문헌자료로 나누는가 하면, 백호승 님은 문헌자료(지역사회와 관련된 선인들의 사적자료, 각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문헌 및 회의록, 통계, 연보 등의 기록자료,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 시청각자료(각종필름, 사진, 지도자료), 박물관자료(역사학적·고고학적 자료 중 유물·유품 등 순수한 박물 자료를 제외한 문헌자료)로 나누고 있다. 양상숙 님은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향토자료란, 일정 지역 문화권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목표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한 모든 자료를 총

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향토자료'란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특정지역의 산물이며,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향토자료'란 용어보다는 '지역자료'라는 용어가 시대적 감각에 맞는 포괄적이며, 지역의 모든 자료를 총칭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양상숙⁶⁾ 님이 1999년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향토자료와 지역자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 도서관의 경우, 향토자료와 지역자료가 같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9개관 중 10개관(52.6%)이었고, 8개관(42.1%)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차이에서 같다가 7개관(46.7%), 다르다고 6개관(40%), 모르겠다가 2개관(13.3%)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의 '지역자료'란 종래 '향토자료'의 발전적 의미이며 개념 정의는 일정 지역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산물로서 시대적 제한 없이 보존적 가치가 있는 모든 주제와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지역자료의 수집에 한한다. 지역자료는 자료의 유형과 도서관의 규모와 조직에 따라 보존과 정리·이

5)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431.

6) 양상숙,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 1999

용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보존과 정리·이용은 지역자료 수집에 성과가 달렸으므로 수집과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수집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물론 수집은 보존과 이용을 전제로 하지만 보존과 이용은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하였다.

연구대상(수집대상) 범위와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지리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 한하였다.

둘째,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산물은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전 가능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셋째, 형태적으로는 도서, 각종 영상매체, 사진 등의 비도서 자료 일체와 채록과 같은 구술 자료도 포함하였다.

넷째, 생산주체도 기관, 단체, 개인을 망라하였다.

다섯째, 지역국립대학으로서 지역자료 수집에 대한 역할을 조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용어의 변환 사용을 꾀하였으며 수집방법에 관한 것은 연구자가 다년간 지역자료 수집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지역자료 수집 실태 및 문제점

1. 지역자료 수집의 중요성

각 시대 각 지역의 지역자료들은 그 지

방의 문화가 생겨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과 흔적들을 갖게 되고 독특한 지역자료들로 남게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해야 할 것은 어떤 지역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다. 지역자료는 특정 시대 특정 공간의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본인 경우도 많으므로 지역도서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집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사회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과거를 되살려 현재를 부흥시키고 희망이 있는 미래로 옮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역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자료는 지역의 제반 현황과 각종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기 고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해 준다. 특히 지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 현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 등은 지방행정 자료와 지역사회 문제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역자료를 통해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고유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지역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자료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자료는 특정지역의 뿌리를 찾고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역사, 지리, 문화, 도시, 건축, 경제, 자연, 환경, 생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생성, 성장, 발달 및 변천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며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굴 계승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길을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역자료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애향심 증진, 세계화 시대에 자기 고장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문화를 찾아내어 세계화 속에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전 세계에 지역사회를 알리기 위한 작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이다.

2. 지역자료 수집의 실태

지역도서관에서의 지역자료의 개발과 수집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것이며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원천이다. 다음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조사 결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진 도서관이 한 곳도 없으며, 수집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 도서관도 15%정도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직무유기의 가까운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自館에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100%) 모두가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인 경우 15개관 중 7개관(46.7%)은 문서화된 수서 정책이 있었으며 8개관이 문서화된 지역자료 수집의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원하고 있다⁷⁾고 대답하였으며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중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3개관(15.8%)뿐이었으며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6개관(84.2%)이었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중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11개관(73.3%)이었으며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서관이 3개관(20%)뿐으로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⁸⁾고 지적하고 있다.

명문화된 지역자료 수집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도서관 예산 중에 지역자료 수집 예산을 별도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역자료 수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화된 수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정책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수집 정책이 없다.

둘째, 수집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수집을 위한 예산 편성시 지역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넷째, 발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자료나 간헐적인 기증의뢰에 지역자료 수집을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예산 부족으로 고가의 지역자료는 수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전담 부서 설치나 전담자 배치가 없다.

일곱째, 자발적인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

7) 양상숙, 전계서, pp. 30-31.

8) 양상숙, 전계서, p. 32.

니 지방행정기관이나 단체, 협회, 교회, 사찰, 문중 등 지역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실태조차도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덟째, 기증기관과 수집도서관과의 자료에 대한 가치 평가면에서 차이가 있어 누락 자료가 많다.

아홉째, 대부분의 지역자료는 비매품으로 지역기관에서 스스로 보내주지 않으면 지역도서관에서는 발생사실 조차 모르는 수가 많으며 자료 담당직원의 잊은 인사이동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3. 지역자료 수집의 문제점

을바른 지역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수집의지와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수집 계획 아래, 독립된 예산항목을 설정하고 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역자료 수집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서관 풍토가 조성되기까지는 도서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료 수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역자료 수집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지역자료는 비매품이 많으며 지방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간행한 것이 대부분인데 담당자의 잊은 인사이동과 인식부족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래된 지

역자료의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셋째, 도서관내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인원 배치, 예산확보 등 지역자료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수집이 어렵다.

넷째, 지방자치시대 지역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지역도서관에 관한 납본규정이 없다.

다섯째, 지역 도서관간 혹은 지역과 전국 도서관간 중복적 수집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지방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기가 어렵다.

여섯째,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홀함으로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일곱째, 채록, 녹화 등을 위한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다.

여덟째, 대학도서관에 보내져야 할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지역자료가 기관대표자나 박물관, 기타 유사 기관으로 송부되어 지역 각 기관 간행물의 결호가 많다.

III.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1. 타 도서관 및 유사기관과의 중복수집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역자료 수집을 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에는 구마다 시립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경북지

역의 시·군에도 시·군립 도서관이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울진군립도서관에서 울진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대구광역시 북부시립도서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 이상적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군립 도서관은 아직까지 공간, 자료전산화와 예산, 인력, 송수신장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광역단위의 지역자료는 이용편의와 보존을 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의 자체 수집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의 파·훼손에 대비한 이중 수집 체제와 시·군 이용자를 위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과 도립도서관 같은 곳(경상북도에는 없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도 있겠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스템과 예산, 인력, 장비면에서 시·군립 도서관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청 자료실이나 경상북도청 자료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행정기관 중심 수집은 가능할지 모르나 지역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력이나 운영시스템, 예산, 공간, 자료조직 능력, 장비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하다.

둘째, 대부분의 수요자(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셋째, 지역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가 사립대학도서관보다 용이하다

넷째, 지역광역단위 공공도서관이 그 능력을 갖추어 수집하기를 기다려 수집을 유보한다면 자료수집의 공백으로 많은 자료가 유실된다.

다섯째, 지역의 각 기관과 단체 협회 등도 구조 조정이나 기구 통폐합, 공간 재배치 등으로 기존자료의 보존여건이 매우 어려워져 서두르지 않는다면 중요한 자료가 아무런 대책 없이 폐기될 위치에 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공공도서관보다 나은 여건을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서관이 시급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계법적 보존기한을 넘긴 많은 지역자료가 공간사정, 관리 문제 등으로 무분별하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내에서도 박물관과 도서관간, 대학사자료실(자료관)과 도서관간의 중복 수집을 피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게 해야만 중복수집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며 같은 기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자료를 요청한데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수집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결호를 줄일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담자 배치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담당자와 지역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비록 지역자료만을 담당하는 전담자는 아니지만 겸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집을 위한 계획수립과 수집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자료

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지역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자료실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자료의 별도 배치를 통한 보존과 이용편의, 강력한 지역자료 수집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하여 수집한 대구·경북 지역자료는 2002년 말 현재 10,000여 책을 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참고자료실 내 지역자료실의 설치와 담당자가 지역자료 수집을 위하여 출장 등을 자유롭게 다닌 것도 지역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예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국립대학 도서관이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대학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이용도록 제공하는 일은 지역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역 관련 자료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역사와 현상을 알고 지역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이다. 지역 연구 수행에 근본이 되는 지역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예산이나 조직, 인력, 시스템 등에서 열악한 지역공공도서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센터 국립대학도서관이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담자를 배치하여 지역자료수집에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효율적인 지역자료 수집 방법

지역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이것이면 확실하다는 수집방법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자료 수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관에 맞는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형태적, 내용적,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수집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자료 수집실태는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 수집계획 없이 발행기관의 자발적인 기증에 의존하다 보니 수집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예산확보라든가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한 전담자 배치는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현실점에서 실현가능한 지역자료 수집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도서관내에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우면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참고자료실 등에 지역자료 별도 코너라도 마련한다. 이는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수집통계, 수집자료의 종류파악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집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수서과(정보지원과)등에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전담자가 배치될 때까지 일반 수집 업무 담당자를 겸무 지정하여 지역자료 수집업무를 담당케 한다. 자료교환·

기증업무 담당부서가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점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3. 지역자료 발행기관과 소재를 먼저 파악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지역자료 수집대상기관은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 시(군·구)·도의회, 교육청, 문화원, 각종 협회,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 은행, 교회, 사찰, 지방연구소, 문중 등이다.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서지자료 파악은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각종 출판관련 서지자료를 참고하거나 공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4. 주기적인 기증의뢰와 감사장 발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기증의뢰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새로 발간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며, 감사장은 계속적인 기증효과를 유발한다.

5. 지역자료의 가치와 수집의 중요성을 각 기관 자료담당자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방문시 되도록이면 그 지역내의 방문기관을 사전에 점검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사전 약속을 받아야 한다.

6.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협조를 구한다. 직원중 학부모나 동문을 찾아 협조를 구하면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다.

7. 지역자료실의 자료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치하여 각 지역출신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자료 이용시 편의를 도모하고 그들이 직접 고향기관에 연락도록 유도하거나 단체장이나 담당자를 초청하여 각 지역간 경쟁심리를 유도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8.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지역자료의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리·동장이나 문중, 문화원 등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9. 고서 등 고가의 개인 소장 자료는 시골의 열악한 보관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보존의 어려움과 분실 우려 등을 설명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10. 지방행정기관이나 단체, 협회 방문시 발행자료 배부처 명부에 반드시 지역거점대학 도서관이 포함 되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에 방문 약속을 받아야 한다.

11. 문중의 족보, 문집 자료 등은 후세들의 뿌리 찾기 교육에 필요함을 강조하면 수집이 용이하다.

12. 지역기관의 자료담당자에게 지역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담당업무의 폭주로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함도 명심해야 하며, 지역신문, 각 기관 발행 소식지, 지역뉴스 등을 지역자료 수집 담당자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여 발간 자료의 수집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13. 필요하다면 지역자료의 중요성과 수집광고를 지방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다.

14. 중요한 유일본 자료는 학술적 이용목적으로 복사 협조도 받을 수 있다.

15. 지역 각 기관 자료 담당자와는 공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지역 자료의 수집현황 (종류, 책수 등)을 알려주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16. 지역 각 기관에서 자료를 보내올 때

택배요금은 착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다. 기증 자료의 양이 많으면 담당자는 귀찮아 할 것이며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

17. 시·군 통폐합 등의 조직 변경시 많은 자료가 무더기로 폐기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 각 기관에 발송한 기증의뢰 공문 내용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기관들도 공문수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화를 주어 사용하면 될 것이다.

(1) <시·군·구청, 교육청, 의회, 기업체 등에 보낸 공문 형식>

제목 : 자료기증 및 폐기자료 이관 협조 의뢰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역자료 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본교 학생, 교직원은 물론 지역 각급 기관과 지역주민의 정보제공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자료부족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 충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사)에 자료기증 의뢰를 하오니 귀 기관(사)에서 발행된 자료와 앞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영구보존하여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4. 기증하실 자료가 있으면 우리 도서관 수서정리과(TEL (053)950-6513에서

직접 수령하겠으며, 우편발송의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5. 또한 귀 기관(사)에서 보관하는 자료 중 공간사정이나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즉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증의뢰 자료의 종류(*자관의 수집계획이나 기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변경 가능)

단행본, 논문, 장단기 발전계획, 안내책자, 소식지, 각종 통계, 행정자료, 예산서, 문화홍보자료, 교육자료, 역사자료, 세미나자료, 의회자료(회의록, 의정백서 등), 지역기업체 관련자료, 지역경제자료, 문예자료, 각종보고서(발굴, 조사, 현장), CD, 비디오테이프 등 비도서자료 일체, 기타 책으로 출판되지 않은 모든 자료(문서, 신문, 팜플렛 등). 끝.

(2) <문화원이나 사찰, 지역 개인 고서 수장가 등에게 보낸 공문형식>

제목 : 자료기증 및 폐기자료 이관 협조 의뢰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지역문화재 발굴과 연구 보존을 위하여 애쓰는 귀 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역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본교 학생, 교직원은 물론 각급 기관과 지역주민의 정보제공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자료부족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 충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이에 귀 원에 자료기증 의뢰를 하

오니 귀 원에서 발행된 자료와 앞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귀중한 자
료로 영구 보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 기증하실 자료가 있으면 우리 도서
관 수서정리과(TEL (053)950-6513)를
명시하여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해 주십
시오.

5. 또한 귀 원에서 보관하는 자료 중
공간사정이나 기한 만료로 폐기할 자료
가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즉시 인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6. 지역내에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 고
서 소장자가 있으시면 현대적 시설(항
온항습기, 약품처리 등)을 갖춘 고서실
에서 위탁관리(경우에 따라서는 구매할
수도 있음)하여 드립니다. 끝.

(3) <각 문종에 보낸 공문형식>

제목 : 족보·문집자료 기증의뢰

1. 귀 가문의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2.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역자료
의 발굴 수집을 통한 집대성화와 뿌리
찾기 교육의 일환으로 귀 가문의 족보
및 문집자료를 기증 의뢰하오니 협조하
여 주시면 보존과 이용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끝.

(4) <교회 등에 보낸 공문형식>

제목 : 자료기증 의뢰

1. 귀 노회 및 지교회의 평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
의 발굴·수집을 통한 자료의 집대성화
와 지역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귀 노회 및 지교회에서 발간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협
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증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경북대
학교 도서관 수서정리과(TEL (053)950
-6513)에서 직접 수령하겠으며, 우편발
송의 경우 반드시 도서관을 명시하여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4. 또한 귀 노회에서 보관하는 자료
중 공간사정이나 기한 만료로 폐기할
자료가 있으시면 즉시 인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5. 기증의뢰 자료의 종류

각종 통계, 홍보자료, 교회사, 설교집,
신문, 팜플렛 등 기발간자료 및 앞으로
발간될 모든 자료. 끝.

IV. 맷음말

지금까지 지역거점(센터)국립대학 도서
관의 지역자료 수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종래의 향토자료와 혼용하던 지역자료의
명칭을 시대감각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공공도서관이나 기타 유사
기관에서도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지역관련 연구자를 위한 편의성, 인력과
예산, 시설, 자료 송수신장비, 자료조작·
가공능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 공공도서관이나
행정기관의 자료실보다는 지역 거점 국립

대학 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구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파·훼손 등에 대비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 자료만을 수집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의 조정은 지방 도협이나 지역 학회 등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집중식 납본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도서관법 제7조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 자료·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국립중앙) 또는 10부(국회도서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수를 조정하여 지역 중심 도서관에도 1~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집방안은 본인이 지역자료 수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북·대구지역, 시청·군청, 문화원, 교육청, 상공회의소, 은행, 신문사, 교회(설립이 일정년도 이상), 사찰 등 지역자료가 있을만한 곳이면 올릉도를 제외하고 직접 방문하여 얻은 실무 경험적 방법이다. 각 도서관에서 취사선택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왜냐하면 지역자료의 중요성은 세계유일의 정보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원이 있어야 세계 각 곳의 이용자에게 우리 지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도서관이 지역자료 수집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였다. 지역 도서관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

여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다고 생각할 때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겁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국립대학 도서관이 지역자료 수집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주연,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8.
2. 정분도, "향토자료의 서지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3. 김창원, "지역도서관으로서 향토자료실 운영", 「디지털도서관」, 제25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2.
4. 진경복,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실 운영", 「디지털도서관」, 제25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2.
5. 양상숙, "대학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6. 조은진, "공공도서관 향토자료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보」, 제15호, 대구직할시립도서관, 1994.
7.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1992.
8. 강권익, "대학 도서관에 있어서의 향토자료의 수집,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소고",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6집,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88.
9. 김선혜, "향토자료와 공공도서관", 「도서관보」, 제13호, 대구직할시립도서관, 1992.
10. 최정태, "향토자료의 개발에 관한 소고", 「전북문헌정보」, 창간호, 1985.